

# 광주상의 회장선거 갈등 고조

지난달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차기 회장선거가 다음달로 미뤄질 공산이 커지는 등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당초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마형렬 전 회장의 출마제한 안건과 선거 일정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상임위원들간 견해 차이로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의원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선거는 오는 25일 소집되는 임시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빨라도 11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광주상의 개정정관 중 일부 재개정안

## 마 전회장 출마 제한 안건싸고 상임의원 대립 빠르면 내달 보선... 회장 공석 장기화 불가피

▲회장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사퇴당사자 출마제한 관련안 ▲임시의원총회 개최일정 등이 상정됐다. 상임의원들은 사퇴당사자 출마제한 관련안을 놓고 두 편으로 나뉘어 날카롭게 대립했다.

구체적으로 출마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보궐선거 재출마가 예상되는 마 전 회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은 "재출마는 당사자(마 전 회장)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사자의 재출마가 정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의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 전 회장의 재출마를 반대하는 측은 "특정인의 재출마 자격제한은 특정인에 대한 인격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등 4자 합의와 사회적인 약속을 깨뜨리고자 하는 특정인에 대한 제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성산(금호산업 대표) 상임의원은 "지난해 직무정지 가져 분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마 전

회장이 1년6개월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면서 "보궐선거 원리제 공자가 재출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금호측은 의원총회에서 '특정인의 입김에 휩쓸려' 사퇴당사자 출마제한 규정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사퇴당사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차기회장 선거를 둘러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상의는 마 전 회장이 지난해 19대 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금호그룹 측과 소송을 벌인 끝에 3년 임기의 절반만을 채우고 지난해 15일 중도 사퇴함에 따라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인라인롤러 경기장 준공·기증식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열린 인라인·롤러스케이팅경기장 준공식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동철 국회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한국토지공사 제공>

## 수완지구에 국내 최대 인라인경기장 준공

620석 규모... 광주 전국체전 경기장 활용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수완택지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라인·롤러스케이팅경기장이 건설돼 향후 광주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지구 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인라인경기장의

준공식을 갖고 광주시에 경기장을 기증했다. 이 경기장은 오는 8월 개막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각종 인라인·롤러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된다.

수완지구 인라인경기장은 총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7천865㎡ 규모로 건립했으며, 주트랙과 보조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주트랙은 각종 대회의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보조트랙은 연습공간으로 개방해 인라인호잉 등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기장은 620석 규모의 관중석, 선수대기실, 샤워실, 심판실, 방수실 등은 물론, 야간경기를 타워라이프까지 갖추는 등 인라인·롤러경기장으로는 국내 최첨단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줄이겠다”

신임 김정민 광주국세청장



“지역경제를 돕겠다는 약속을 하나하나 점검,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천에 옮기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일 취임한 김정민(57)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불성실 납세자는 엄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무조사와 관련, 김 청장은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 과세해 부담하게 납세자를 힘들게 한 사람은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세무조사 건수는 가능한한 대폭 줄이고 현장 조사기간도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집행된 종합부동산세제, 유상반기 중정착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 등 주요 세정과 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특제,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복지세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968년 9급 공무원으로 출발, 40여년 만에 지방국세청장에 올랐다. 특히 김 청장 국세청 심사 2과장 재임시 모든 부실과세를 고지 전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개선,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했다.

강진 출신으로 광주고와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나왔으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 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과장을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아시아나·대한항공 노선 구조조정

내달부터 중국 운항 줄이고 日·동남아 증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동계 시즌이 시작되는 내달 28일부터 강점이 있는 노선을 늘리고 취약노선을 과감히 줄여 수익성 극대화를 시도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하계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 최근 전략회의를 열고 내달 28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인 동계 시즌에 ‘항공노선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선별 운항편수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올해 동계시즌에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중국노선의 운항편수를 줄이는 대신 동남아와 일본노선을 증편

하는 등 양 항공사가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동계 시즌에 하계 휴양지가 있는 중국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일본노선에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명품 항공사를 지향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미주와 구주 등 장거리 노선을 지난해 동계 시즌보다 늘리는 대신 중국 선양 등 겨울철에 인기가 없는 중국 일부 지역은 감편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중소기업 동력 소폭 상승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지난 8월 가동률이 전달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1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생산설비의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71.1%로 전달(70.3%)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68.9%로 전월보다 0.4% 포인트, 전남은 72.7%로 전월보다 1.0% 포인트 각각 상승했

다.

또 업종별로는 화학물·화학제품, 의료 및 광학기기, 기계·장비 제조업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1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생산설비의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71.1%로 전달(70.3%)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측은 “내수 회복 및 수출 호조로 가동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소형 마트·정육점 한우 허위표시 판매

중소형마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중 일부는 아직도 젓소·육우 등을 한우로 허위 표시한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7~8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중소형 마트 및 개인 정육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쇠고기 10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수도권 2개 제품과 부산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경기도 분당 소재 A마트와 서울 중구소재 B마트, 부산소재 C한우마을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젓소 또는 육우 제품을 한우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표시 행위는 쇠고기 원산지 및 한우의 구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연광뉴스

## 광주 9월 산업생산 21% 증가

지난달 광주지역의 산업생산은 호조를 보인 반면 소비동향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5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나 증가한 것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의 정상조업 등으로 인해 생산지수가 전달인 7월보다 9.0%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달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6.7로, 전년 동월과 전달에 비해 각각 3.6%, 9.7% 감소했다.

또 지난달 건설발주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동반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에 비해 4천976억6천100만원(83.8%) 줄어든 961억3천100만원에 그쳤다.

전국의 경우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약한 투자 증가세와 환율, 유가 등은 여전히 경기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16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늘었다. 특히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반도체 및 부품(29.4%), 자동차(18.1%)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년복리정기예금 연수익률 5.85% [확정금리]**

업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증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고급한 설비에 강아크리비 증가집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고차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다. 신세 최선봉 차차에 고시업승가다.

【특약】 설비비, 도가니비, 설비공비, 열원수비, 도가니비, 도가니비

증가집 설령탕

예약전화 062)374-0015

**인테리어 목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알레오” 열교환선 밀폐난방이 핵심입니다.

대리점 및 취리점 모집

(주)태양상사

TEL: 062)262-0101